

새정부, 1년째 공전 ‘북핵 로드맵’ 주목

안보리 활용 ‘대화 재개’ 외교 노력 ‘北 움직여 달라’ 中에 요청할 수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인수위가 새 정부의 북핵 대화 로드맵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 역시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4월 북한의 로켓 발사로 북미 2·29 합의가 깨지고 1년 가까이 북핵 대화가 중단되면서 새로 대화 재개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북한의 핵 능력도 시시각각 진전되고 있다는 시급성을 감안할 때 새 정부가 출범 초기 북핵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펼칠 것이라 전망도 있다.

또한, 올해부터 2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만큼 안보리 이사국 지위에 걸 맞는 적극적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 전략대화를 공약한만큼 이런 외교적 노력의 1차 포인트는 중국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결정적일 때 북한 편을 든다”는 평가를 받는 중

국의 입장이 이전보다 한미 양국의 대북 기조에 근접할 경우 상당한 대북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엔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3일 “한·미·중 3자가 협의체를 통해 단일한 목소리를 낸다면 강력한 기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과연 중국이 북한을 제외한 3자 협의를 받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3자 대화는 불참해도 북핵

대화 재개로 가는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새 정부가 고민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6자회담 조속 재개가 중국의 입장인 만큼 이를 위해 북한을 움직여 줄 것을 중국에 요청할 수도 있다.

북한이 2·29 합의 때 약속했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등이 대화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로 거론된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핵 대화 동결을 깨고 대화재개 국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징검다리야 필요하다”면서 “북핵 대화 로드맵의 핵심은 이런 징

검다리를 언제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북한의 기존합의 준수 및 비핵화 진전에 상응하는 조치 등을 공약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남북보다 북미가 먼저 대화를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현재 미국 내 분위기는 북미대화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의 조화상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에서는 과거 ‘3단계 접근법’과 같이 한미간 공조 방안도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北 신년사 분석’ 토론회

정세 전망’이란 주제 토론회에서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우리민중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이란 주제 토론회에서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슈미트 구글 회장·리처드슨 이르면 이달 방북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가 이르면 이달 중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AP 통신이 서울발 보도로 3일 전했다.

통신은 의명을 요구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슈미트 회장이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이끄는 사적, 인도주의적 목적의 방북에 동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방북은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슈미트 회장과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북한에서 누구를 만날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미국명 케네스 배)씨 문

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 관리들과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며 배씨를 직접 만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최근 배씨를 간첩혐의로 억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지난 1994년 이래 수차례 방북한 바 있으며, 이 중 두 차례는 북한에 강제 억류된 미국인 석방 협상을 위한 방문이었다. 가장 최근의 방문은 지난 2010년이었다.

슈미트 회장의 북한 방문이 이뤄지면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의 회장이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통제가 엄격한 나라를 방문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고 AP 통신은 의미 부여했다.

【연합뉴스

올 공무원 보수 총액대비 2.8% 인상

대통령 연봉 1억9255만원, 시도지사 1억661만원

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 대비 평균 2.8% 인상된다. 대통령 연봉은 1억9255만원으로 2억원에 육박하며, 사병 봉급은 20% 오른다.

정부는 2013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총액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평균 2.8%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제작년 5.1%, 작년 3.5%에 비하면 약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해 인상률이 낮아졌다.

대통령 연봉은 작년 1억8642만원에서 3.3% 오른 1억9255만원이 된다. 여기에 연봉과 별도로 월 320만원

씩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와 월 13만원의 급식비를 더하면 총 보수는 2억2638만원에서 2억3251만원으로 2.7% 오른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4928만원, 직급보조비 172만원과 급식비 13만원을 더한 총 보수는 1억7148만원이 된다.

장관급 연봉은 1억977만원이며, 감사원장은 1억1294만원, 대통령 정책실장은 1억819만원이다.

차관급 연봉은 1억321만원에서 1억661만원으로 올랐다.

서울시장은 1억977만원이고 도지사과 광역시장, 서울시·광역시도 교육감, 서울시 정부부시장 등의 연봉이 1억661만원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대학생 요람 남도학숙 입사생 모집

25일까지 접수

서울지역 대학교에 재학중인 광주·전남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인 남도학숙이 2013년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363명(남 200명, 여 163명)으로 광주 188명(남 106명, 여 82명), 전남 175명(남 94명, 여 81명)이다. 계열별로는 2013년도 대학 신입생 231명, 대학 재학생 127명, 대학원생 5명이다.

지원자격은 서울소재 4년제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석사과정)으로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공고일(2013년 1월4일) 현재 광주 또는 전남이어야 한다.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또는 고교 3학년 1학기 학교성적이 평균 6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재학생과 대학원생은 전체 학년 평점평균 B 학점 이상이면 된다.

접수는 광주시와 전남도, 남도학숙 홈페이지에서 입사원서를 다운받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광주시청과 전남도 일선 시·군청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2월8일 광주시, 전남도, 남도학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남도학숙은 월 14만 원의 기숙사비를 내면 되고, 장학금(올해 70명 대상 1억6000만원) 지원 혜택이 있다. 이외에도 과테말라 자원봉사와 유럽 배낭여행 등 해외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단배식 대신 봉사활동

민주 광주시당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위원장 장병완)은 3일 단배식 대신 봉사활동으로 새해를 시작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오후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당직자,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 광주 남구 양림동 일대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광주지역 국회의원 연일씨에 참석한 가운데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장병완 시장위원장은 “지난해 정권창출 실패로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2013년은 새해를 혁신해 광주시민들에게 보다 더 사랑받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새해 새 설계

“사회적·마을 기업 집중 육성”



무등·봉선시장 활성화

새청사 시민 공간활용

주민 필요한 사업 발굴

이뤄진 것이다. 현 청사부지 활용 방안 역시 주민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85.4%의 찬성을 얻어낸 뒤 현 청사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최 청장은 “새로운 청사가 들어서면서 교통난이 심각해 질 것이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구청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차량 운영을

줄이는데 주민들의 협조도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럽의 선진국들은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 보다 차전거도로나 인도를 넓히고 있다”며 “도로를 넓혀 교통체증을 없애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역발상의 아이디어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새롭게 들어설 남구청사는 직원들의 것이 아닌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옥상에 광주에서는 가장 큰 규모인 1400여평의 정원을 조성해 새 구청이 시민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을 위해서도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국정기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열악한 재정여건의 극복하기 위한 대안도 내놔다. 최 청장은 “지난해 중앙부처공모사업에 공모한 16건 가운데 15건이 선정돼 289억원을 지원받았다”며 “중앙정부 지원만 기대할 게 아니라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철저·한·독일 인의·장 인 정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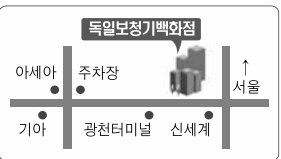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경매 · 소액일반투자

95%적중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률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률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아지않고선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정양) 광주 서구 농성동 641-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검색

通... 하십시오!



더 신뢰있고 더 좋은 정보를 방문하신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목욕탕 매매

1만5천여 세대 독점 성업중인 최신시설 목욕탕, 높은 수익률

대 지

2,480㎡(750평)

건 물

4,460㎡(1350평)

용 자

20억~25원 까지

매매가

40억원

(감정가 58억원)

실 준비금

15억~20억원 까지

행운공인중개사

011-642-7777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금 매

“담양” 무인텔

대 지 : 5,048㎡

연건평 : 2,474㎡

객 실 : 32개

현 성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담후 결정

염전 금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피어 사가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히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헬011-602-2532

(광주광역시 신촌동, 대인동 소방서건너편)